1985年度 世界 經濟의 展望

1985年度 世界經濟에 대한 展望은 전반적으로 밝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1985년의 世界經濟에 대한 展望이다.

길고 길었던 不況으로부터 벗어나 景氣回復基調에 접어든지 2년째가 되었던.지난 84년이 그렇다고 世界經濟에 대한 長期回復의 기초를 다졌다고도 할 수 없다. 올해도 작년의 回復基調를 유지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강력하고 안정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같은 의문이 해소될 것인가? 아니면 역으로 그같은 의문들의 諸要因들이 더욱 크게 부풀어 오를 것인가? 어쨌든 85년은 80년대 后半의 世界經濟를 左右할 수 있는 중요한 해인 것만은 틀림없다.

1979년의 第2次 油類 波動 이래 4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世界的인 不況도 끝나 어두웠던 80년대 初半에서부터 80년대 中半으로 향해 기초를 다지는 한해가 지난 84년이었다.

先進 24개工業國으로 구성된 OECD (經濟協力開發機構)는 83년말 時點에서 OECD 전체의 84년도 實質經濟成長率은 3.5%가 될 것으로 豫想했다. 그러나 先進國經濟는 美國을 중심으로 예상외로 回復속도가 빨랐다. 그러므로 OECD는 작년 6월 時點에서 작년도 전체의 成長率 豫想을 4.25%로 上向 修正, 또한 작년말에는 5%까지 豫想을 끌어 올렸다.

OECD는 「世界景氣의 先導的 역할을 하고 있는 美國의 景氣가 예상외로 擴大, 85년에도 世界景氣의 擴大는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85년에도 景氣擴大는 지속될 것이지만 작년 만큼의 成長率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작년 6월 時點에서 85년의 成長率을 2.75%로 豫想했던 OECD는 작년말 時點에서 3%로 끌어 올렸으나 이것은 작년말의 5%에 비하면 상당한 弱勢이다.

國別로 보면 작년도에 先導的 역할을 수행했던 美國이 3～4%, 日本이 5%, 歐洲諸國이 2～3%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美國의 景氣動向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美國의 景氣가 世界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막대하며 그 나라의 成長率이 약간 上昇하거나 下落함에 따라 世界的인 景氣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美國에 있어서의 84년도 景氣回復은 실로 눈부신 바 있었다. 특히 上半期만을 보더라도 GNP (國民總生産)의 實質成長率은 1/4分期 9.6%, 2/4分期 7.1% (다같이 年率)를 나타내 過熱을 우려할 정도의 높은 成長率을 보였다. 그래서 政府는 작년도 전체 成長率이 6%에 달할 것이라는 見解를 가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下半期에 이르러 景氣가 크게 鈍化되므로써 결국 당초의 예상대로 4%에서 5%정도의 成長率에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

下半期에 景氣가 크게 둔화된 것은 企業의 設備投資와 並行하여 回復을 뒷받침했던 民間消費支出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3/4分期의 GNP成長率은 1.9%까지 떨어져 4/4分期에도 2% 내지 3%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3/4分期의 GNP統計가 발표된 단계에서 美國의 景氣는 그대로 둔화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回復基調로 되돌아올 것인가가 커다란 話題가 되었다. 그러나 태반의 豫想은 올해 1/4分期에 다시 景氣는 회복되어 年率 4%前后의 成長率을 달성할 것이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견해가 支配的이었다. 政府는 「高度成長에서부터 지속적이고 더우기 安定된 成長으로 移行되는 과

정에서 일시적인 景氣둔화는 당연한 것이다. 내년이후 수년간은 平均 4%의 安定成長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실은 80년대를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長期的인 景氣擴大가 지속될 것이라는 豫想은 83년도부터 있었던 일이다. 볼드릿지 美商務省長官 등 일부 美政府 當局者들은 美國經濟는 戰后最長의 擴大期를 맞을 것이라고 이미 83년도에 豫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最長의 擴大期는 106개월로 약 9년간 계속되었으나 이것을 上回하게 된다면 83년 7월부터 시작된 현재 美國의 景氣回復은 90년대초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된다. 現實的으로 이것이 달성된다면 레이건 政權의 經濟政策은 뒤에 매우 높은 評價를 받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安定되고 長期的인 景氣回復이 무조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레이건 政權의 出發당시부터 문제로 대두되었던 두개의 커다란 威脅, 巨額의 財政赤字와 高金利를 해소하는 것이 絶對要件으로 되어 있다. 美國政府, 또는 일부 經濟專門家들 사이에는 巨額의 財政赤字=政府支出의 증가가 景氣浮揚 効果를 發動, 이것이 현재의 景氣擴大를 助長하고 있다는 說이 있다. 그래도 巨額의 財政赤字가 앞으로의 景氣擴大를 저해할 것이라는 說에 대해 많은 美國의 政府 當局者들은 異論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美國政府가 작년 여름에 발표한 中間 經濟推定에 의하면 85년부터 87년까지의 經濟成長率은 平均 4%가 될 것이라 한다. 덧붙여서 말하면 인플레率은 4.4%, 4.7%, 4.4%, 4.1%로 이것도 4%대의 安定水準으로 推移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金利는 3개월 財務省證券(TB) 利率로 85년부터 87년까지 9.3%, 8.5%, 7.2%로 서서히 低下하고 財政赤字는 85년도(84년 10월부터 85년 9월까지)가 1,724억弗, 86년도 1,742억弗, 87년도 1,748억弗로 1,700억弗대가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豫測대로라면 볼드릿지美商務省長官 등의 豫言은 적중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民間豫測機關은 政府豫測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成長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87년까지 美國의 經濟成長은 「低位安定型」으로 보고 있다. (표 1) 그런 중에도 政府豫測을 上回하는 成長率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 豫測機關도 있으나 그 숫자는 매우 적은 것이다.

표 1. 美国経済予想

	實質GNP 成長率(%)			消費者物價 上昇率(%)		
	85年	86年	87年	85年	86年	87年
政府·民間豫測機關	4.0	4.0	4.0	4.7	4.4	4.1
체이스·이코노메트릭스	3.2	2.5	3.8	4.3	5.4	5.7
시티코프·인포메이션서비스	2.4	1.0	2.2	5.8	7.0	6.5
그레아몬드·이코노믹스 인스티튜트	4.0	6.2	4.25	3.7	3.2	3.5
데이터·리소시즈	2.5	2.7	3.8	3.7	4.3	4.9
에반스·이코노믹스	3.3	3.5	0.2	3.6	5.1	5.5
메리르·린치	3.2	2.5	3.7	4.6	4.7	5.2
시어슨·리만·아메리칸·익스프레스	3.6	2.8	3.5	3.9	3.7	4.8
A·그레이·시링	0.6	5.4	4.3	2.75	3.25	3.75
워튼·이코노메트릭스	3.6	1.6	4.8	3.8	5.0	4.2

이와 같은 豫測機關을 비롯하여 政府豫測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指摘은 역시 財政赤字와 金利에서 발생하고 있다. 例를 들면 金利의 경우 政府는 내년 이후부터 서서히 낮춘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民間經濟專門家들은 1/4分期에 다시 景氣가 회복되어 기업의 資金需要가 왕성해지면 金利는 上昇하게 될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財政赤字의 규모는 크고 政府의 資金需要가 쇠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兩者의 資金爭奪戰이 展開될 것은 必至의 사실이며 따라서 金利도 上昇하게 된다. 작년말 時點에서 9%를 下回했던 短期金利는 금년 여름에는 10%를 넘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經濟專門家들의 견해이다.

이미 이와 같은 기미가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에 레이건 大統領이 再選된 직후, 85년도의 財政赤字는 당초의 豫想인 1,724억弗을 크게 上

回한 1,950억弗에 달할 것이라는 修正推計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財政赤字의 증가가 어느 정도 金利를 上昇시킬 것인가는 모른다 하더라도 政府가 前提했던 豫測가운데 하나가 軌를 벗어난 것만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레이건 大統領은 再選의 중요정책의 하나로 財政赤字의 削減을 들어 스스로 앞장서서 그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85년도의 赤字削減은 이미 어렵다 하더라도 86년도 이후 3년간에 赤字規模를 1,000억弗로 縮少한다는 目標를 수립하여 행동에 옮겨가고 있다.

이 결과 增稅없이 政府支出의 凍結내지는 削減에 따라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을 決意, 聖域으로 되어 있는 國防支出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86년도에는 400여억弗을 또한 87년도 이후에는 이를 上回하는 支出削減을 試圖하게 된다. 그 내용은 이달 중에 있을 豫算教書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레이건 大統領의 決意가 아무리 強力하더라도 議會의 支持 여부는 별문제이다. 國防費 支出을 비롯하여 福祉, 教育, 都市開發 關聯支出이 크게 削減된다는 데 반대가 없을리 없다. 大統領 스스로가 年俸의 10% 削減 意思를 나타냈으며 公務員 給與의 5%削減을 제안하고 있으나 어디까지 議會 또는 國民의 支持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財政赤字政策과 並行하여 진행되고 있는 稅制改革에 있어서도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減稅效果가 나타나고 있어 施行되고 있는 消費增大와 관련하여 景氣回復을 促進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企業에 있어서는 增稅로 經濟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령 消費支出은 伸張하더라도 또 하나의 景氣浮揚 要因이 되고 있는 企業의 設備投資가 萎縮된다면 오히려 双方의 景氣擴大 效果는 相殺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충 보더라도 美國의 景氣回復은 조심스럽게 받아 들여져야 옳다고 본다. 政府가 豫測한 4% 成長率은 약간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民間豫測機關과 같은 1%를 下回하는 정도의 격심한 상황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OECD가 豫想한 3~4% 사이로 내다보고 있다.

EC (歐洲共同體) 의 올해의 景氣는 美國과는 대조적으로 작년보다 上回할 것으로 보고있다.

EC委員會의 84~85年 經濟報告에 따르면 84년의 實質經濟成長率은 2.2%라고 한다. 이것은 당초에 OECD가 豫想했던 것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우기 同委員會의 83년 말 時點에서의 豫想이 1.5%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예상외의 景氣回復勢가 된다. 그리고 올해에도 景氣는 완만하게 回復, 同委員會는 實質成長率을 2.3%로 設定하고 있다.

EC의 景氣回復이 美國의 순조로운 景氣擴大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美國의 景氣擴大와 때를 맞추어 換率市場에서의 달러高가 EC각국으로부터의 對美國 輸出을 크게 伸張시켰기 때문이다.

EC內部의 景氣回復 要因으로는 個人消費는 停滯했으나 設備投資가 上向 경향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美國에 대한 依存度는 높고 예를 들면 西獨의 경우 작년의 成長率 2.5%에서 그 半이상인 1.5%가 美國의 景氣擴大와 달러高에 의한 것이라 한다.

西獨은 EC經濟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EC諸國으로부터 다소의 불만을 사고 있다. 西獨의 경우 작년의 成長率은 2.5%이며 올해에는 政府當局의 豫想으로 3%, 5大經濟研究所의 豫想은 2%로 되고 있다. 다른 EC諸國의 불만으로는 西獨은 좀더 과감한 景氣擴大策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西獨은 과거 수년간 財政赤字 削減策을 취하고 있어 이것이 景氣擴大를 小幅으로 멈추게 하고 있다. 西獨내에서도 景氣擴大를 위해 政策轉換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西獨의 經濟를 보면 인플레率은 작년의 2.4%에서 올해에는 2%로 低下하고 國際収支도 大幅 黒字로 매우 건전하다. 다만 다른 EC諸國과 같이 높은 수준의 失業率이 계속되고 있다. 失業率은 올해에도 작년의 9.5%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

로 보고 있다. 失業者는 漸增할 기미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財政主導型의 景氣擴大策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 西獨政府가 정책을 변경했던 前例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올해의 經濟成長豫想도 美國依存型의 2～3%에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EC 經濟의 全般을 推定해 보면 인플레率이 작년의 5.5%에서 올해에는 4.2%로 物價의 安定基調도 더욱 굳어져 國際收支도 작년까지의 均衡狀態에서 올해에는 黑字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失業者의 증가가 계속되는 것으로 작년의 11.0%이던 失業率이 올해에는 11.5%로 上昇한다는 것이다. 이 失業問題는 특히 젊은 층의 失業增加라는 狀況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西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雇用改善策을 취할 수 없는 事情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EC諸國은 다같이 美國依存型의 小幅成長路線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가령 EC 各國이 美國과 같은 수준인 4%의 成長目標를 세워 雇用改善 등을 企圖하더라도 만약 美國의 成長率이 둔화되면 실질적으로는 EC委員會가 豫想한 2.3% 정도의 成長에 멈추게 될 수도 있다. EC委員會의 成長豫想이 美國의 4% 成長을 전제로 한다면 그 결과는 어쩌면 「豫想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지나 않을런지.

그러면 日本經濟의 앞으로의 展望은 어떻게 될 것인가.

日本經濟企劃廳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85－86년 모델豫測」에 의하면 美國이 財政赤字의 削減과 金融緩和를 시행하고 日本 및 歐洲 등 8개 先進國들도 協助하여 內需擴大政策을 展開한다면 日本은 앞으로 2년간 實質 4%대의 安定成長을 계속하게 된다.

역으로 政策協助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日本의 實質成長率은 86년에 3%로 떨어지고 또한 先進9개國이 앞으로 2년간 輸入을 5%씩 줄이게 되면 日本은 86년부터 한꺼번에 2%대로 下落하게 된다.

이 모델은 先進國 首腦會議 參加 7개國에 韓國과 濠洲를 합친 9개국의 經濟데이터와 貿易관계 데이터를 종합한 외에 ① 現在의 政策을 바꾸지 않는다. ② 새로운 政策協助를 한다. ③輸入을 削減한다의 세가지 케이스로 나눈 각국의 앞으로의 2년간 經濟를 豫測한 것이다.

먼저 첫째의 政策不變케이스는 美國이 지금까지의 財政支出擴大＝財政赤字의 保合내지는 增大＝政策과 金融緊縮＝金利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日本도 緊縮財政·金融緩和政策을 지속하는 경우를 想定하고 있다. 그 결과 美國의 成長率이 85, 86년 다같이 3%대의 安定成長을 지속하지만 日本의 경우 4%成長은 85년만으로 86년에는 3.5%로 第2次 油類波動 이후의 3%대의 低成長으로 되돌아 간다.

둘째 케이스인 「새로운 政策協助」에서는 美國이 財政赤字를 크게 削減하는 외에 美國을 포함한 先進各國이 85년부터 市中金利를 2% 정도 낮추는 金融緩和政策으로 나서리라는 것을 想定하고 있다.

美國의 財政赤字에 있어서는 85년에 400억弗, 86년에 700억弗을 각각 削減한다는 것을 전제로

표 2. 美·日·欧의 実質 経済成長率
(日本企劃廳의 85～86 모델 予測)

日本		美國		西獨		先進9개국	
85年	86年	85年	86年	85年	86年	85年	86年
케이스① 各國이 現在의 政策을 바꾸지 않는다.							
4.1	3.5	3.4	3.2	2.1	1.7	3.2	2.9
(350)	(350)	(△1,200)	(△1,360)	(90)	(150)		
케이스② 各國이 財政, 金融面에서 새로운政策協助							
4.1	4.2	4.2	3.8	2.5	1.6	3.7	3.3
(350)	(320)	(△1,160)	(△1,310)	(90)	(150)		
케이스③ 各國이 保護主義로 5%의 輸入削減							
2.8	2.1	3.3	3.3	1.5	0.4	2.6	2.2
(260)	(220)	(△1,120)	(△1,260)	(110)	(140)		

註 : 先進 9개국에는 韓國도 포함. 輸入削減케이스③은 政策不變 케이스①의 경우의 輸入數量에서 각각 5% 削減(괄호는 經常收支黑字, 억弗, △赤字)

하고 있으나 이것은 레이건 政權이 目標로 하고 있는 赤字 削減幅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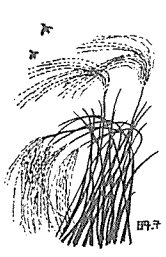
이와 같은 前提條件이 충족될 경우 美國의 實質經濟成長率은 85년에 4.2%, 86년에 3.8%가 된다. 그리고 日本도 85년에 4.1%, 86년에 4.2%로 4%대의 安定成長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美國의 財政赤字 削減과 金利低下는 美國의 安定成長 뿐만 아니라 世界 各國의 安定成長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즉 世界經濟의 安定成長은 美國의 安定成長이 前提條件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째 케이스는 첫째 케아스의 政策不變의 경우 輸入數量이 85, 86년 다같이 5%씩 줄이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 결과는 美國의 成長率은 3%대의 安定成長을 지속하지만, 日本은 85년에 2.8%, 86년에 2.1%로 2%대의 低成長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西獨의 경우에는 85년의 1.5%, 86년에는 0.4%로 거의 제로成長이 된다. 이것은 日本이나 西獨經濟가 다같이 輸出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日本의 경우에는 방대한 貿易黑字에 대해 各國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保護貿易主義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日本經濟企劃廳은「保護貿易主義가 대두됨에 따라 日本은 市場開放이나 內需擴大에 의한 貿易黑字減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先進工業諸國은 새로운 政策協助에 의해 安定되고 지속적인 成長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작년까지의 景氣回復氣流는 急轉하여 下降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열쇠는 美國의 經濟政策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先進工業國의 安定되고 지속적인 成長에 의해 發展途上國의 經濟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5년이라는 한해는 1990년대를 향해 世界經濟를 어떤 方向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커다란 岐路에 선 한해라고도 할 수 있으나 全般的으로 밝은 經濟展望이 지속되기를 바란다.